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정통과 이단이 만나는 곳에 갈등과 폭력이 일어난다. 정통의 입장에서 이단(異端)은 정통과 다른(異, 이) 끝(端, 단)에 서 있는 사람들과, 이단의 입장에서 정통은 바르고(正) 전통(統, 통)이라는 착각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사우스프트에서 시작되어 영국 전역으로 확산한 백인 극우주의자들의 이슬람 난민 추방 시위로 정통과 이단이라는 충돌이다. 르완다 기독교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17살 영국 청년이 어린이 댄스 교실에 흥기를 들고 난입하여 어린이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는 그 청년이 이슬람 난민이라는 가짜뉴스였다.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소셜미디어 역사를 통해 퍼졌고, 영국 전역에서 백인 극우주의자들의 난민 추방 폭력으로 이어졌다. 경찰차가 불타고, 유색인종의 차를 부수는 장면이 TV에서 연일 방송되었다. 마침 영국에 머물던 필자에게도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은 가지 말라는 메

이단(異端)

시지가 왔고 집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시위대가 목표로 삼은 런던 월섬스토(Walthamstow) 지역이나 시내 중심의 시위 예상 지역에 수만 명의 폭력 반대 시민들이 운집하여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통과 이단 논쟁이 있다. 기독교는 정통이고 이슬람은 이단, 백인은 정통이고 유색인종은 이단, 영국인은 정통이고 난민들은 이단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이다. 파키스탄이나 인도 등지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무슬림 난민, 이민자들은 이번 폭동을 주도한 영국 백인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이단이다.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기독교 윤리에 대항하는 이단 집단이다. 여자들은 모두 히잡을 쓰고 다니고, 자기들만의 상권을 형성하여 거래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 영국의 복지를 독식하는 용서할 수 없는 이단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를 주려는 부족하고, 주택가격과 물가는 치솟고, 도둑과 폭력으로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영국에서, 그 원인은 모두 이민자, 난민, 이슬람, 무슬림에 있다는 생각이 보수 백인들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다. 지금은 영국 정부의 강력한 처벌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로 잠잠해졌지만, 이 소강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필자가 영국에서 직접 목격한 정통과 이단의 갈등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25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거리는 일을 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부족한 노동 인력이나 건설, 식당, 요양원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이 없으면 도저히 유지하지 못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가사 관리 돌봄 인력이 들어와 어린이와 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시각 역시 정통과 이단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단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과 멸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경제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한국인이라는 정통의 갑옷을 입고 공격한다면(攻乎異端, 공호이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격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斯害也, 사해야이). 이단에 대한 공격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격한 자에게 돌아갈 것인 공자의 경고다. 정통과 이단은 영원하지 않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단과 정통은 자리를 바꾼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을 공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공자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들을 때이다.

종교칼럼

신앙의 '어떻게'와 '어떠한가?'



최현열 광주 순교교회 담임목사

우리 교회에는 마라톤을 즐겨 하기도 하고 많은 아마추어 마라톤러들을 가르치는 집사님이 계신다. 주일에 교우들과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느덧 마라톤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나는 마라톤을 좋아하지도 않고 해 본 적도 없지만 가끔 설교할 때 신앙에 그것을 비유하곤 했다.

나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귀동냥으로 들어 설교할 때 인용하지만 그분은 긴 세월 스스로 터득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니 더욱 깊이 와 닿는다. 장시간 훈련을 통해 체력과 지구력을 길러야 하고 거기에 먹는 것도 절제하며 몸무게를 비롯한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요즘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과학적인 기술을 적용해 페이스를 유지하여 완주하고 기록을 단축한다고 한다.

마라톤뿐 아니라 많은 운동 경기 결과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훈련을 해 왔는지가 판기를 한다고 하였다. 금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선수들이 피땀 흘려 어떻게 훈련해 왔는지 그 기간을 보면 알 수 있다. 몇 년간을 선수촌 생활을 하며 오로지 운동에 전념했던 선수들, 승리의 순간에 아마도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니 감격과 더불어 울컥하며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당시의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였다.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 인내하고 절제하며 훈련에 매진했지만, 경기 당일 몸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 부상을 당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기는 마라톤이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전통적인 남자 마라톤이 아닌 여자 마라톤과 시상식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여자 마라톤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다. 그것은 42.195km를 달리는 가운데 40km 이상을 선두 그룹을 유지하며 같이 달리던 선수들이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두 시간 이상을 같이 달리다가 불과 몇 초 차이로 등수가 갈리면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몇 백 미터를 남겨두고 두 선수가 몸싸움을 할 정도로 치열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려 결국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는 네덜란드의 시판하산이라는 선수이다. 그리고 3초 차이로 세계기록 보유자 에티오피아의 아세파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시판하산 선수는 앞서 5천 미터, 1만 미터에서 동메달을 이미 딴 선수인데 마라톤에서까지 금메달을 차지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녀는 원래 꿈은 간호사였지만 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신앙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까지 사도 바울은 "경주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지만 일

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주에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현대어 번역)"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운동선수들의 삶과 그 결이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우리의 신앙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낸다. 때로는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교회와 복음을 위해 봉사한다. 더불어서 절대 놓치지 말고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가?'이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상태인가를 살피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열심에 더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 신앙의 성과를 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를 닮은 성품은 더욱 중요하다. 운동선수들이 장시간 훈련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고 시합 당일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련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인다운을 언제나 유지해 마침내 결승선에 이르기를 바란다.

기고

K-푸드의 중심 '김치', K-김치의 중심 '광주'



김용일 광주시의원

지금 전 세계는 K-팝, K-콘텐츠, K-푸드 등 바야흐로 K-브랜드 시대이며, 이러한 K-브랜드 열풍의 중심엔 K-푸드가 있다. 음식은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발달·진화하면서 그 나라 혹은 특정 지역을 대표하곤 한다.

광주·전남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평야와 산,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 덕에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예로부터 맛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곡류, 해산물, 산채, 육류 등의 각종 재료로 만든 김치는 그 어느 지역 김치보다도 풍요로운 맛과 정취를 담고 있어 '남도김치', '광주김치'라는 고유명사까지 생기게 됐다.

흔히들 김치의 맛은 장인의 감각과 손맛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정에서 만드는 김치와 산업적 측면의 김치는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모든 공정을 계량화, 데이터화하여 대량으로 생산해도 같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수다.

더군다나 김치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 발효식품

이다. 즉 배추, 고추와 같이 눈에 보이는 원료뿐만 아니라 유산균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제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가력'이라는 무기를 확보한 중국산 김치를 뒤로하고 한국 김치가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품질'도 승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김치 중추도시로서 앞서 나가기 위해 2010년 광주김치타운을 설립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 유치에 성공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우리나라 김치 품질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위생·안전성이 보증된 고품질 김치 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 수급 안정화, 김치 생산공정 자동화·효율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실제로 김치를 맛있게 발효시키는 주요 미생물인 '중균' 개발, 김치 생산 자동화를 위한 각종 장치를 개발, 김치산업에 보급하여 김치의 과학화·산업화를 실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광주의 김치 생산량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곤 한다. 김치 원부재료 산지, 수도권과 같은 대량 소비처, 향만 등 물리적 입지의 한계 등의 이유로 광주의 김치 생산 기반이 취약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이는 김치산업을 김치 제조업으로만 국한시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편협한 판단이다.

김치산업은 단순 제조업을 넘어 전후방 및 연관·파생산업까지 광장히 광범위한 산업이다. 우리에게는 다

른 누구에게도 없는 '맛의 고장'이라는 문화자원, '김치타운'이라는 시설자원, 그리고 '세계김치연구소'라는 기술자원 등 이미 많은 자원이 확보되어 있어 이러한 자원을 십분 활용해 김치산업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엮어 미래 광주김치산업을 위한 다각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세계김치연구소의 연구개발을 통해 명인 김치를 과학으로 재해석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한 핵심원천기술을 전국의 김치제조업체로 보급하며, 연구소의 각종 과학·문화·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김치박물관·체험관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더불어 광주시의 또 다른 강점인 인공지능을 김치산업에 접목한 김치테크(AI+김치산업) 지원센터를 더해 국가 김치산업을 전방위 지원할 수 있는 집적화된 김치 종합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K-김치'의 중심에 광주가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기능성 김치 1호의 주인공은 바로 광주의 김치 업체에서 생산된 김치이다. 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우수 사례로 세계김치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다.

앞으로도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도만이 광주김치산업 발전의 비법목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 '광주김치'가 글로벌 무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社說

두 쪽 난 광복절...통합의 메시지는 없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두 동강 난 상태로 개최됐다.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이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데 반해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참석한 경축식은 같은 시각 정부 행사장에서 3.4km 떨어진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것이다.

사상 초유의 두 쪽 난 광복절 경축식은 광복회 등이 '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한 설득을 시도했지만 별도의 경축식을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불참은 차치하더라도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빠진 광복절 경축식은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두 쪽 난 경축식도 그렇지만 통합의 메시지 대신 분열의 메시지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더욱 안타깝게 한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허위 선동과

사이버 논리가 자유사회를 교란시킨다"며 "선동과 낱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대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고 분열의 책임을 참석하지 않은 측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광복절인데도 일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아쉽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일본과 대등한 역량을 갖춘 만큼 한일관계를 굳이 지적하지 않은 것은 '극일'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는데 어불성실일 뿐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의 굴욕 외교 비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두 쪽 난 광복절 경축식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중용해온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정점에 서게 됐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통합 늦은 무안공항, 동네공항으로 전략 위기

지난 2007년 문을 연 무안국제공항이 광주 민간·군 공항을 통합하지 못할 경우, 자칫 오는 2029년 개항하는 새만금국제공항보다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안공항 개항 이후 새만금공항 건설 계획이 나올 당시, 일각에서 양 공항의 경쟁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전남도는 새만금공항 완공 시점에는 무안공항이 이미 활성화된 상태라 걱정할 것이 없다는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은 십수 년 간 통합논의를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무안공항 개항보다 20여 년 늦게 문을 열 새만금공항과 서남권 거점공항의 위상을 놓고 다투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여행업계 등이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새만금공항을 경계하는 이유는 지리적 여건과 항공 수요의 시장이 무안공항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새만금공항은 광주와 전남 일

부 지역에서 이동할 경우 한 시간 정도 거리로 무안공항과 비슷하며, 특히 그동안 전북에 공항이 없어 무안공항을 이용했던 순창·고창 등 전북 남부지역 주민들은 새만금공항을 이용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이 완전 통합에 합의하더라도 국제공항에 걸맞은 시스템과 활주로 등 시설을 구축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수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조속히 민간 공항의 이점을 결정하고, 무안군은 군공항 유치로 화답해야 한다. 또한 전남도는 무안군이 대승적 결정을 할 경우, 모든 피해 보상과 해당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산 무안군수는 모든 정치적 이해 관계를 버리고, 무안공항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위한 장기적 안목 차원에서 민간·군 공항의 이전에 합의하기를 바란다.

無等鼓

각본 없는 드라마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다. 2024 파리 올림픽이 지난 12일 폐막식을 갖고 17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1976년 몬트리올을 대회 이후 최소인 14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금 5개, 종합 순위 15라는 목표를 넘어 금 13·은 9·동 10 종합 8위를 달성했다.

선수들의 혼신을 다한 플레이는 메달의 수, 메달의 색보다 값졌다. 밤을 잊은 국민들은 태극전사들과 함께 뛰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린 올림픽을 즐겼다.

하지만 '서툰목의 여왕' 안세영은 1996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이후 역대 두 번째이자 28년

에 들어갔고,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중오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지난해 10월 아시안게임 부상 후튼을 애타게 지켜봤던 국민들은 이번 여름 적수 없던 안세영의 활약에 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 지난 10개월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알게 된 국민들은 함께 분노했다. 안세영은 올림픽 시상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두 팔을 옆으로 크게 펼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었다. 많은 것이 답

작심발언

만인 여자 단식 우승자가 되고도 마음껏 웃지 못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빛나는 주인공이 된 안세영은 선수 인생 최고의 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노력의 결실인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은 "우리 협회는 모든 걸 다 막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후폭풍은 거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김 안세영의 품짓과 표정이었다.

"해 풀지 지금?"이라는 시선이 있었다. "잔치를 망쳤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가장 빛나는 순간, 안세영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우리는 많은 스포츠 종목의 비리와 논란을 지켜왔다. 많은 선수가 희생양이 되는 모습도 수없이 지켜봤다. 더 이상 스포츠 팬들에게 '결과'가 전부라 아니다. 안세영의 목소리가 '찾난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김여을 체육부 차장 wool@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 note about content quality.